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2023년 9월 11일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소개

톤온톤 디자인의 우아함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탤런트인 아티스트 자리아 포먼(Zaria Forman)과 함께한 “One of not Many” 캠페인 런칭을 기념하는 의미로 35mm의 Overseas 셀프 와인딩 모델이 출시됩니다.
-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핑크 골드로 완성된 이 타임피스에는 톤온톤 골드 다이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은은하게 반짝이며 풍성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 2개의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되어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이 타임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동반자로 활약합니다.

화사한 골드의 빛을 품고 눈부신 광채를 자아내는 새로운 Overseas 셀프 와인딩 모델이 핑크 골드 컬러로 우아한 품격의 지평을 넓혀 나갑니다. 직경 35mm로 선보이며 슬림한 디자인과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커프를 착용한 듯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이 모델은 아티스트이자 탐험가인 자리아 포먼이 합류하며 선보이는 새로운 ‘One of not Many’ 캠페인 런칭과 함께 공개됩니다.

제네바 Watches and Wonders에서 직경 34.5mm 및 35mm버전으로 공개한 Overseas 컬렉션의 4가지 시계의 뒤를 이어,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바쉐론 콘스탄틴의 Overseas 컬렉션에서 전체를 핑크 골드로 완성한 35mm 모델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세련되면서도 진귀하고, 캐주얼하면서도 특유의 우아한 매력을 자아내는 이 타임피스는 아티스트이자 탐험가로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One of not Many’ 탤런트에 합류한 자리아 포먼(Zaria Forman)과 함께 은은한 광채를 자아냅니다.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소개

톤온톤 디자인의 우아함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톤온톤 디자인의 우아함

이번 봄에는 생동감 넘치는 핑크 골드와 아이코닉한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의 조화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Overseas 셀프 와인딩 시계가 새로운 매력과 함께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화로운 톤온톤 디자인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감싸는 핑크 골드의 따뜻한 광채와 만나 화려한 향연을 펼치고, 투명한 래커와 선버스트 새틴 브러싱 처리된 다이얼은 눈부신 광채를 자아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들은 케이스밴드 및 브레이슬릿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다이얼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말테 크로스를 연상시키는 6면 베젤 위에 섬세하게 세팅되어 눈부신 빛을 자아내는 90 개의 다이아몬드로 한층 풍성한 매력을 선사하는 모노크롬 룩은 손목 위에 슬림한 커프 시계 디자인을 그려냅니다. 마치 하나의 주얼리를 보는 듯한 슬림하면서도 섬세한 실루엣으로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시계를 만나보세요.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Overseas 컬렉션의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선보이는 Overseas 셀프 와인딩 모델 또한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 및 버클 시스템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스타일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타임피스인 말테 크로스를 연상시키는 슬림한 링크로 마치 제2의 피부처럼 유연하고도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핑크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 외에도 2개의 스트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시계 전체를 골드 소재로 조화롭게

제작하여 데일리 룩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의 이브닝 룩에도 어울리는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카프스킨 레더 스트랩은 도심에서의 탐험에 잘 어울리며, 화이트 러버 스트랩은 손목에 스포티한 감성을 더합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이면서 대담한 Overseas 셀프 와인딩 시계는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

톤온톤 디자인의 우아함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소개

톤온톤 디자인의 우아함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Overseas 셀프 와인딩 모델의 시, 분, 초를 구동하는 무브먼트는 바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칼리버 1088/1입니다. 매우 높은 정확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무브먼트는 14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4Hz의 진동수로 시계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임키퍼의 정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스톱 세컨즈 메커니즘을 갖추어 시간 기능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오픈 케이스백 장식의 모든 디테일은 정교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뒷면의 브릿지에는 고프 드 제네브가 장식되어 있으며, 컬렉션의 상징과 같은 로터는 골드 소재에 우아한 윈드로즈 장식을 더한 디자인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여행과 탐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소개

튼튼한 디자인의 우아함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핑크 골드 소재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핑크 골드 소재는 10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크게 돋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교한 시계의 케이스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메종의 아카이브에서는 미닛 리피터와 크로노그래프처럼 탁월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죠. 이같은 흐름은 옐로 및 화이트 골드 시계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던 196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핑크 골드는 언제 다시 돌아왔나요?

1990년대 초반, 아시아 고객층의 요청에 따라 핑크 골드가 메종의 디자인에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옐로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과 함께 여전히 대표적인 화이트 컬러의 진귀한 메탈로 손꼽히는 화이트 골드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선택지로 자리잡았습니다.

골드 다이얼을 탑재한 새로운 Overseas는 1950년대 및 1960년대의 시계를 떠오르게 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무엇을 표현하려 하셨나요?

브레이슬릿에도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는 핑크 골드 시계 유형에 일반적으로 클래식한 실버 톤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색조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940년대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의 여러 제품에 등장했던 핑크 골드의 조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핑크 골드와 같은 진귀한 메탈을 사용한 디자인이 Overseas 컬렉션의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매력과 어울리나요?

물론이죠! Overseas는 오프 율로제리 분야에서 굳건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시계는 스틸 소재뿐 아니라 진귀한 메탈 소재로도 제작될 수 있으며, 새로운 Overseas 셀프 와인딩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디자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 앤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 Christian Selmoni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소개

톤온톤 디자인의 우아함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요약

바쉐론 콘스탄틴이 새롭게 'One of not Many'에 합류한 자리아 포먼과 선보이는 Overseas 캠페인 비주얼과 함께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Overseas 컬렉션에서 35mm의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핑크 골드 소재를 적용한 새로운 셀프 와인딩 모델을 선보입니다. 이 버전에서는 투명 래커와 선버스트 새틴 브러싱 처리가 돋보이는 톤온톤 다이얼 컬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컵 디자인으로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을 자아내는 이 모델은 2개의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되며,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1088/1의 정밀한 움직임에 맞추어 구동합니다.



골드와 눈부신 광채로 완성된
OVERSEAS 셀프 와인딩
OVERSEAS 35MM 에 새로운 반짝임을 더하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소개

튼튼한 디자인의 우아함

하나의 디자인 속에 깃든 다채로운 매력

높은 신뢰도의 칼리버 1088/1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요약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Overseas self-winding

| | |
|-----------------------|---|
| Reference | 4605V/200R-B968: golden dial |
| Calibre | 1088/1 Manufacture calibre Mechanical, self-winding 22K gold Overseas oscillating weight 20.80 mm (9") diameter, 3.83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44 components 26 jewels |
| Indications | Hours, minutes, centre seconds Date |
| Case | 18K 5N pink gold 35 mm diameter, 9.33 mm thick Bezel set with 90 round-cut diamonds Soft iron casing ring ensuring anti-magnetic protection Screwed-down crown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15 bar (approx. 150 metres) |
| Dial | golden, transparent lacquered, sunburst satin-finished base and velvet-finished external minutes track 18K 5N pink gold hour-markers and hours & minutes hands highlighted with blue Super-LumiNova® |
| Straps | 4605V/200R-B968 : 18K 5N pink gold (half Maltese cross-shaped polished and satin-brushed links), secured by a 18K 5N pink gold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and comfort-adjustment system |
| Additional straps | 4605V/200R-B968 : white calfskin leather with tone-on-tone stitches, white rubber. Delivered with a 18K 5N pink gold buckle with interchangeable system, compatible with both additional straps |
| Total diamond-setting | 90 diamonds, for a total weight of approx. 0.86 carats (guaranteed minimum carats) |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레이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